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연구

Determinants on the Reemployment of Disabled Women

양정빈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Jung-Bin Yang(yjb@nsu.ac.kr)

요약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1차(2008)~7차(2014)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인적자원 특성의 각 요인들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정도, 건강상태, 자격증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이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이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격증이 있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여성장애인 | 재취업 | 장애인고용패널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determinants on the reemployment of disabled women. The researcher performed a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aw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from 2008(1st) to 2014(7th). The analysis focused on 744 disabled women in reemployed and unemployed statu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recipient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extent of disability, physical health condition, certification status, and the experience of previous employment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reemployment of disabled women. That is to say, disabled women have a higher tendency to be reemployed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no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inor disabilities, good health condition, possession of certification, and previous experience of employment. On the basis of study finding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such as a phase-in of health promotion policy to improve their health status, tailored job training programs, and development of various jobs in current labour market.

■ keyword : | Disabled Women | Reemployment |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

* 이 논문은 2015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11월 07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15일

교신저자 : 양정빈, e-mail : yjb@nsu.ac.kr

1. 서론

한국의 여성장애인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의 문제'와 장애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장애의 문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double discrimination)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1]. 이렇듯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 여성장애인은 교육, 결혼, 주거, 이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배제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임금, 승진에 있어 차별을 겪으며, 불안정한 경제시장으로 인해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취업은 여성장애인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며 여성장애인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듯 취업은 여성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노동시장에 만연한 장애인의 고용차별 장벽을 허물고,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차별금지조치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보고서[3]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8%, 실업률은 7.9%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60.9%, 실업률 3.8%와 비교해 볼 때 고용률은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한 고용 환경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은 이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은 44.7%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21.0%로 나타나 남성장애

인의 고용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장애인의 직종은 단순노무직(33.5%)이나 기능, 기계조작(29.1%)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8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 인구의 75.5% 수준으로 본인의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평균 근무기간은 6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 중 77.7%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한 이후에도 장애인과의 경쟁과 직무환경의 악조건으로 인해 가중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결국 잦은 이직을 초래하게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의 이직 비율은 70% 정도로 장애인(19.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5]. 종합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열악한 처우와 소득보장의 한계로 인해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불안정한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이들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우리사회의 고용환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명예퇴직을 요구받는 등 고용불안정이 상당한 실정이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이미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신분으로 받을 들여놓기 때문에 이직과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고용정책을 논할 때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외에도 재취업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야 한다. 재취업은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기 취업과는 출발선상이 달라 지원 정책 역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주로 취업만을 다루고 있으며, 재취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인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물을 보면, 대부분 장애유형별로 대상을 나누어 이들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2][6]을 선두로, 산재 장애인[7][8], 노령 장애인

[9] 등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미 장애인의 재취업을 논한 연구물을 보면, 성별의 특수성을 구별하여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10], 이는 한국사회의 현실상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이거나 비장애 여성보다 더욱 심각한 차별의 대상이 되므로 재취업의 실태 역시 남성에 비해 취약하며,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요인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확대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취업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관련 연구는 2000년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김용탁·구인순(2013)[6]은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을 인적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요인, 이전직장요인 등 5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만성질환의 여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여부, 일자리 차별 경험 등의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남정휘·강민수(2014)[2]는 인적자본요인, 이전직장의 고용요인, 인구학적 요인이 장애인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 유무, 장애정도, 차별정도가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적자본요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성표·정진철(2015)[12]은 자격취득이 장애인의 재취업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수행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장애인일수

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인적자원 특성 등 세 가지로 구분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장애인 스스로 갖고 있는 내적인 특성,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며, 주로 연령,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등이 포함된다. 여성장애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에 관한 연구결과, 개인적인 맥락이 사회적인 맥락에 비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혼인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나 가사 활동 유무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11].

일반적으로 연령은 재취업뿐만 아니라 취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수로 여겨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13][14]이 있는 반면, 오히려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15][16]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 미혼보다는 기혼자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취업, 재취업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연구자들은 가족부양의 책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17].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지원이 많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실제로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가 수급자에 비해 취업과 재취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급자 탈락과 연관된 문제로, 수급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으려는 것이다[2].

2. 장애관련 특성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와 관련된 특성은 일상생활 및 재취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는 고용시장의 진입을 결정짓는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관련 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 만성질환 유무, 현재의 건강상태 등이 꼽히며,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적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8-20]. 실제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장애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Kennedy와 Olney의 연구결과[20], 장애와 건강 문제가 적을수록 노동시장의 접근과 취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취업과 재취업 모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즉,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는 능력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적자원 특성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재취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적자원 특성을 들 수 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본 특성은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 직업훈련 참여 유무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한 반면, 학력이 낮을 경우 경제활동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된다[20]. 그러나 교육수준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현실의 장애인 고용환경은 그렇지 못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21].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자격증 취득 교육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20]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Martz와 Xu[22]가 실시한 미국의 재활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예측조사 결과,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Bolton, Bellini와 Brookings[23]의 연구결과 역시 직업훈련 서비스 경험이 노동시장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즉, 직업훈련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고용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며 고용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겠다[24]. 이와 더불어 자격증 취득이 재취업과 유의미한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이선우[13]의 연구결과, 다양한 인적자

원 중 자격취득만이 취업가능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준상[25] 역시 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 영역이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고용패널(P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을 활용하였다. 본 패널은 장애인의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15개 유형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5,09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생활 전반에 걸친 자료를 조사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차(2008)부터 7차(2014)까지의 패널 중 재취업자와 실업자이다. 미취업자는 1차부터 7차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재취업자는 7차 조사를 기준으로 취업한 사람 가운데 1차~6차 조사에서 취업과 실업을 경험한 응답자로 선정하였다. 단, 1차~7차까지 계속 취업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응답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추출하였다. 그 결과, 실업자는 669명, 재취업자는 75명으로 총 744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취업 유무로, 재취업은 1, 미취업은 0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크게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그리고 인적자원 특성으로 나뉜다. 인구학적 특성에는 연령,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가 포함된다. 연령은 만 나이를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했으며 배우자 유무와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더미 변수화 시켜 분석하였다. 장

에관련 특성으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환 유무, 건강상태 등 4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신체외부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가 포함되며, 감각장애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신체내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장루/요루장애가 각각 포함된다.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만성질환은 '있음'과 '없음'으로, 건강상태는 '좋지 않음'과 '좋음'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특성은 학력, 자격증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이 포함된다. 학력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했으며, 자격증과 고용서비스 경험은 있음과 없음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와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종속변수	재취업	재취업=1 미취업=0	
독립변수	인구학적 특성	연령	만 나이
		배우자	있음=1 없음=0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1 비수급자=0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	신체외부 장애=1 감각 장애=2 정신적 장애=3 신체내부 장애=4
		장애정도	중증=1 경증=0
		만성질환	있음=1 없음=0
		건강상태	좋음=1 좋지 않음=0
	인적자원 특성	학력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
		자격증	있음=1 없음=0
고용서비스 경험		있음=1 없음=0	

3. 자료분석 및 연구모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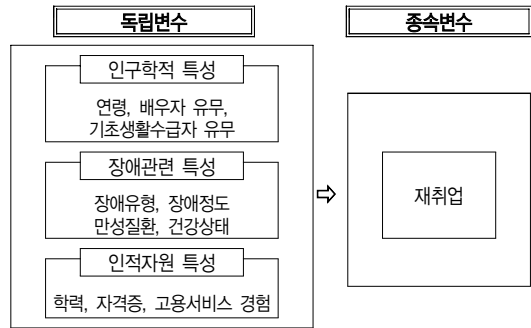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744명이 응답한 가운데 재취업자는 75명(10.1%), 미취업자는 669명(89.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에 과반수 이상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재취업자는 평균 50.75세, 미취업자는 53.80세로 미취업자의 연령이 재취업자보다 다소 높았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하여 재취업자는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51명, 68.0%)이 높은 반면, 미취업자는 배우자가 없다는 응답(362명, 54.1%)이 더 많았다. 재취업자는 비수급자의 비중이 67명(89.3%)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미취업자는 수급자(330명, 49.3%)와 비수급자(339명, 50.7%)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애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재취업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37명, 49.3%)와 감각장애(32명, 42.7%)가 대부분이었고, 미취업자는 신체외부장애(378명, 56.5%)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취업자의 장애정도는 경증이 월등히 많았고(54명, 72.0%), 미취업자의 경우 중증(413명, 61.7%)이 더 많았다. 만성질환 유무와 관련하여 재취업자는 '있다'는 응답(38명, 50.7%)과 '없다'는 응답(37명, 49.3%)이 비슷하였고, 미취업자는 '있다'는 응답(475명, 71.0%)이 높았다. 건강상태에 대해 재취업자는 '좋다'는 응답(39명, 52.0%)이 많은 반면 미취업자는 '좋지 않다'는 응답(495명, 74.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특성과 관련하여, 학력의 경우

재취업자는 고졸(28명, 37.3%)이 많았고, 미취업자는 초졸(185명, 27.7%)이 가장 많았다. 자격증을 가진 재취업자는 20명(26.7%), 미취업자는 48명(7.2%)으로 재취업자의 자격증 소지율이 높았다. 고용서비스 경험과 관련하여, 재취업자는 4명(5.3%), 미취업자는 10명(1.5%)으로 재취업자의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재취업	미취업	전체	
전체	75(10.1)	669(89.9)	744(100.0)	
인구학적 특성	연령			
	20대	3(4.0)	18(2.7)	21(2.8)
	30대	7(9.3)	47(7.0)	54(7.3)
	40대	17(22.7)	123(18.4)	140(18.8)
	50대	33(44.0)	246(36.8)	279(37.5)
	60대	15(20.0)	235(35.1)	250(33.6)
	평균 (표준편차)	50.75 (10.07)	53.80 (9.66)	53.49 (9.74)
	배우자			
	없음	24(32.0)	362(54.1)	386(51.9)
	있음	51(68.0)	307(45.9)	358(48.1)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자	67(89.3)	339(50.7)	406(54.6)	
수급자	8(10.7)	330(49.3)	338(45.4)	
장애관련 특성	신체외부	37(49.3)	378(56.5)	415(55.8)
	장애감각	32(42.7)	131(19.6)	163(21.9)
	유형			
	정신적	2(2.7)	99(14.8)	101(13.6)
	신체내부	4(5.3)	61(9.1)	65(8.7)
	장애정도			
	경증	54(72.0)	256(38.3)	310(41.7)
	중증	21(28.0)	413(61.7)	434(58.3)
	만성질환			
	없음	37(49.3)	194(29.0)	231(31.0)
있음	38(50.7)	475(71.0)	513(69.0)	
건강상태				
좋지 않음	36(48.0)	495(74.0)	531(71.4)	
좋음	39(52.0)	174(26.0)	213(28.6)	
인적자원 특성	무학	9(12.0)	140(20.9)	149(20.0)
	초졸	17(22.7)	185(27.7)	202(27.2)
	중졸	11(14.7)	132(19.7)	143(19.2)
	고졸	28(37.3)	177(26.5)	205(27.6)
	대졸이상	10(13.3)	35(5.2)	45(6.0)
	자격증			
	없음	55(73.3)	621(92.8)	676(90.9)
	있음	20(26.7)	48(7.2)	68(9.1)
	고용서비스 경험			
	없음	71(94.7)	659(98.5)	730(98.1)
있음	4(5.3)	10(1.5)	14(1.9)	

2.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80.786$, $p<.001$ 로 나타나 분석 모형은 비교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분류정확도는 88.4%, 투입된 변수의 설명력은 26.6%이었다.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장애정도와 건강상태, 그리고 인적자원

특성에서는 자격증 유무와 고용서비스 경험 변수가 규명되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중증장애인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또한 건강상태가 다소 좋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향후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3.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구분	B	S.E	Wald	Exp(b)	
인구학적 특성	연령	-.003	.018	.019	.997
	배우자	.419	.377	1.240	1.521
	기초생활수급자	-1.663**	.507	10.778	.190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	.205	.185	1.227	1.227
	장애정도	1.281***	.362	12.518	3.600
	만성질환	-.334	.361	.856	.716
	건강상태	.742*	.350	4.479	2.099
인적자원 특성	학력	-.025	.147	.029	.975
	자격증	1.101**	.396	7.746	3.008
	고용서비스 경험	1.631*	.806	4.090	5.107
상수		-3.226*	1.327	5.907	.040
사례수		744			
Chi-square		80.786***			
-2 Log likelihood		315.286			
Nagelkerke R ²		.266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부터 7차까지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취업 여성장애인과 미취업 여성장애인을 추출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 중 기초생활수급자 변수가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보다는 비수급자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급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던 선행연구의 결과[26]와도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용이 될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활동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

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장애관련 특성 중 장애정도와 건강상태가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일수록 또한 건강상태가 다소 좋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과 재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들[2][6][12]과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셋째, 인적자원 특성에서는 자격증 유무와 고용서비스 경험이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향후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결과는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27], 자격취득이 장애인의 재취업과 구직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12]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건강상태가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증보다는 경증의 여성장애인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보장구에 의존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신체활동량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여성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인 여성장애인연대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 자격증 취득 유무와 고용서비스 경험이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한 여성장애인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 하

겠다. 그러나 장애인고용패널 7차 자료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한 이의 비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자격증 미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자격증 취득이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취업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여성인력 전문기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고용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직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수급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소득이 차감되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일정한 수급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여 근로 동기와 능력을 유인하는 제도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은 훨씬 어려운 실정이다[12]. 따라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정 직종을 개발하고 양육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시간제 근무, 보육 시설 확충 등)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과 관련된 실증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에 머물렀던 논의를 재취업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도록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해 진행한 만큼 재취업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재취업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이 근무한 이전 직장의 특성이나 경력, 임금수준, 근로기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언급되는 만큼, 이 변수들을 포함해 재취업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취업과 실업, 그리고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양정빈,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2호, pp.226-253, 2015.

[2] 남정휘, 강민수, “장애인의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4호, pp.27-49, 2014.

[3] 고제훈, 김종미, 김호진, 김성천,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4] 백동훈,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 변민수, 류정진, 김호진, 김성대, 2010년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6] 김용탁, 구인순,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재활복지, 제17권, 제4호, pp.151-176, 2013.

[7] 박수경,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8권, pp.171-193, 1999.

[8] 임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 및 재취업유형 결정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 박혜진, “노령 장애인의 취업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특수교육 : 이론과 실천, 제8권, 제2호, pp.169-195, 2007.

[10] 조홍중, 전이상,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4권, 제4호, pp.379-402, 2003.

[11] 김용탁, 구인순, 장애인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2.

[12] 홍성표, 정진철, “자격취득이 장애인 재취업 및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3호, pp.169-196, 2015.

[13]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제33권, pp.287-313, 1997.

[14] M. J. Mazerolle and G. Singh, “Economic and social correlates of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63, No.6, pp.717-730, 2004.

[15] 남정휘, 최영, “장애인의 실업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제17권, 제4호, pp.127-149, 2013.

[16] S. Lippmann, “Rethinking Risk in the New Economic: Age and Cohort Effects on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Human Relations, Vol.61, pp.1259-1292, 2008.

[17] M. Baldwin and W. G. Johnson,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4, No.4, pp.555-577, 1995.

[18] 유동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42권, pp.290-313, 2000.

[19] R. Crisp, “Key factors related to vocational outcome: Trends for six disability groups,”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71, No.4, pp.30-37, 2005.

[20] J. Kennedy and M. F. Olney, “Factors Associated with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SSDI Beneficiar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72, No.4, pp.24-30, 2006.

[21] 강위영, 나운환,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2001.

[22] E. Martz and Y. J. Xu, “Person-related and

service-related factors predicting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28, No.2, pp.97-104, 2008.

[23] B. F. Bolton, J. L. Bellini, and J. B. Brookings, “Predicting Client Employment Outcomes from Personal History, Functional Limitation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Vol.44, No.1, pp.10-21, 2000.

[24] 박지영, “여성장애의 실업탈출확률 및 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79-104, 2010.

[25] 이준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18권, 제2호, pp.57-58, 2008.

[26] 박지영, 신은경, “국민기초수급대상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제16권, 제2호, pp.5-26, 2006.

[27] 김동일, 김수정, 김경선, “학교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호, pp.5-23, 2012.

저 자 소 개

양 정 빈(Jung-Bin Yang)

정회원



- 199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졸업(문학사)
- 2000년 1월 : 미국일리노이주립 대학교(어버너-샴페인) School of Social Work (MSW)
- 2009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여성장애인, 노인정신건강